

■ 의과대학 학습 부적응자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제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정신과학교실 전 우 택

I. 시작하는 말 : 의대생들에 대한 오해

의대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대생, 의전원생들에 대한 오해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을까?

- 오해 1 :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잘 하는 똑똑한 사람들일 것이다.
- 오해 2 : 학생들은 의사가 될 것이라는 동기가 분명할 것이다.
- 오해 3 : 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오해 4 : 학생들은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것이다.
- 오해 5 : 학생들은 경쟁을 시킬수록 공부를 더 잘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학생들만을 입학시켜 가르치는 의과대학, 의전원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나 학습 부적응을 논의한다

* 본 글은 2007년 5월 31일에 있었던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주제발표 한 원고입니다.

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모순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공부를 아주 잘하던 학생들이 새로 부과된 공부를 아주 못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첫째, 학생 쪽에서 새로운 문제를 가지게 되었거나, 둘째, 새로 가르치는 학교와 교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학생 측에서의 요인과 학교 측에서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한다. 그런데 필자의 입장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글은 아무래도 의예과 출신 본과 학생들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따라서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의전원 학생들에 대한 내용은 향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나오는 의과대학 또는 의대생이라는 표현은 의과대학/의전원, 의대생/의전원 학생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올린다. 둘째, 어쩌면 이 글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이, 교육 역시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다. 의대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이상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쓴 글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올린다.

II. 학습 부진의 학생 측 원인

그렇게 입학하기 힘들었던 의과대학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힘들어하거나 학습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가진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았다.

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부족(오해 1)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의대생들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원과 과외로 만들어진 학생들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스스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논리적 흐름을 만들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암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창조적인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더욱더 훈련이 안되어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모든 것은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의 몫이었다. 심지어는 언제 어느 내용을 어디까지 외워야 한다는 시간표 까지도 선생님들이 조직적으로 짜 주었고 학생들은 그저 그것만을 따라 하였다. 즉 학생들은 오직 이미 타인이 만들어 준 시간표 속에서 타인이 만들어 준 재가공 최종 결과물을 무조건 읽고 외우는 일만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잘 하는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 불렀고,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오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게 된다. 이제는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논리적 흐름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하며 암기하여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학에서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그렇게 재가공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들 공동 족보집과 노트를 만들어 학습을 해보려는 시도들도 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자기주도형 학습 능력이 배양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대 학생들

은 나름대로 이 간격을 극복하는 해결 방식을 스스로 배워 나가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기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학습 부적응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특히 학습 분량이 극도로 많고 그에 따른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의과대학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 의학공부에 대한 흥미를 못 가짐(오해 2)

많은 의대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무관하게 의대에 들어오고 있다. 근래 의과대학 입학 성적이 더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과거보다 좀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능 성적이 아까워서, 주변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의대에 밀려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학생들은 자신이 싫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 내려는 일종의 책임감과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은 그런 생각과 태도가 매우 적다. 자신에게 흥미가 느껴지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공부를 계속 수행할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미 연령적으로 성인기에 들어섰기에,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은 일종의 성인교육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성인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 스스로 그것에 흥미와 동기를 가져야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가 의학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면 학습 부진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과거보다도 더 높아졌다.

3. 자기 관리 능력 부족(오해 3)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연령적으로 모두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잘 알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의외로 몇 가지 영역에서 너무도 미숙하다. 그 미숙한 대표적 영역이 자기 관리 능력이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극도로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큰 해방감을 느낀다. 그런 해방감은 모든 대학생들의 느낌이지만, 타 학문 전공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취업의 어려움 등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비교적 빨리 공부로 돌아오면서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예과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진로가 확정되었다는 안도감, 선배들의 예과 때 실컷 놀라는 어리석은(?) 조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그 해방감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특히 더 자기 절제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예과 기간을 술 마시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여행 다니고 이성 친구 사귀면서 문자 그대로 '잘 놀아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학생들은 그 이후에 본과에 들어와서도 자기 관리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이 고등학교 때 까지 아주 우수하였던 학생들이 본과에 진입하여 많은 학습량을 처리 못하고 학습부진자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4. 학업 이외의 문제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 (오해 4)

의대 학생들에게 있어 대학 기간은 단순히

공부라는 과제만이 주어져 있는 기간이 아니다. 삶의 주기에 있어 초기 성인기를 거치는 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공부 이외에도 아주 많은 삶의 과제를 가진다. 이 기간은 이성교제 등을 통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시기이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나쁘거나 또는 급격히 나빠지는 과정을 겪기도 하면서 등록금이나 집안의 생활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제적 과제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 고민이나 갈등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동료들과의 비교 의식과 열등의식에 고통스러워한다. 부모와의 갈등이 극대화되기도 한다. 동기들과 선배배 사이의 인간관계 등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도 한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 불확실한 전공 선택과 진로 문제에 불안해하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도 한다. 의전원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삶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미 그 시기를 다 거처본 교수들이 볼 때 어떤 문제들은 그 답이 뻔해 보여도,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고민을 유보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요구가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또 가능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의과대학 및 의전원 기간에는 그런 요구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 문제들 중 몇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더 심한 갈등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은 학습 부진자나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5. 경쟁과 과도한 학업 부담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함(오해 5)

이상과 같이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도 많은데, 그래서 공부를 실제로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성적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적이 낮게 나온 것을 스스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경쟁에서 성공해 본 과거 경험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단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게 한다. 힘겨운 경쟁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은 모든 학생들을 좌절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생애 최초로 받는 낮은 등수에 충격을 받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몰라 극도로 혼란스러워 한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불안해한다. 다 비슷비슷한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특별히 천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시험을 가지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늘 위태위태한 불안한 일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부적인 과도한 경쟁이 시작된다. 엄청난 학업 분량과 함께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안정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거나, 나름대로 자신의 성적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 (나는 공부를 잘하는 의대생은 아니지만 다른 능력을 잘 개발한 학생이라는 식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학생들은 그나마 적응이 되지만, 그것이 안되는 학생들은 심한 갈등을 가지면서 방향을 시작한다. 자신을 스스로 아주 무능하고 왜소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우울해 하고 괴로워한다. 그것

은 다시 더 낮은 학업 성적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들어간다. 유급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낯선 후배들과 같이 다녀야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나가도 아무하고도 대화 한번 안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학업은 포기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과도한 경쟁은 학생들을 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Ⅲ. 학습 부진의 학교 측 원인

이렇게 보면 모든 학습 부진 현상의 원인은 학생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란 매우 상대적인 현상이다. 누가 배우는 학생이냐에 따라 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도 학습의 과정과 결과는 뚜렷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잘했다는 의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학습 부진을 보이는 것에 있어, 의대 교수들과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학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한 생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려내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과 훈련을 갖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교육 분량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과도한 교육 분량이 정말 유능하고 좋은 의사를 양성해 내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은 공

부를 매우 열심히 한다. 학교 수업 끝나면 거의 전원이 도서관에 가서 밤 1-2시 까지 공부들을 한다.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의대생들이, 아니 대학생들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들 공부를 하여 이들 학생들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의대생들이 되어 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 올림픽 육상 100미터에 출전시킬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맡은 감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훈련 첫 날부터 출전 하루 전 날까지 다른 아무런 훈련 없이 선수로 하여금 오직 400미터 운동장을 하루에 50바퀴씩 달리게 하는 훈련만 시킨다고 하자. 논리는 분명할 수 있다. 100미터 달리는 분명 달리는 종목이며, 그러므로 많이 달리는 것이 최선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운동선수는 체력이 좋아야 하므로, 50바퀴씩 달린다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선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갖은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한 것이 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10초 이내에 승부가 나는 100미터 경주에서 최고의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폭발적 심폐능력,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근육 강화, 장거리와는 전혀 다른 달리는 주법, 다른 선수들을 견제하는 전략 등은 매일 운동장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50바퀴씩 달려서는 증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의학교육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의학교육은 여전히 운동장 50바퀴 돌리는 훈련만 시키면서 그것을 적절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의학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습 목표의 설정이다. 그리고 학습 목표 설정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 요소의 고려”이다. 즉 중요한 내용들을 의학교육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의과대학 기간 중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레지던트 기간 중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전문의 취득 이후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를 먼저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학생들의 심장내과 임상 실습 기간 중 CAT 방에 들어가 받는 교육은 없다고 한다. 그것은 학생 기간이 아닌 레지던트 교육 기간 중 교육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CAT 방에 들어가는 대신, 심혈관 내과 초진 환자들 면담과 그들과의 상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의대 교육 목표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정리된 학습 목표가 세워진 이후에는, 의대 교육 안에서도 이 내용이 본과 1학년 때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본과 2, 3, 4학년 때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본과 1, 2 학년의 교육 내용은 과도하여, 엄청난 양의 시험을 친다. 그에 반하여 본과 3, 4학년의 실습 기간은 많은 시간이 그저 아무것도 안하고 선생님을 기다리거나 구경 다니는 수준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학년별 교육 목표와 그에 따른 시간 배정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나타내 보인다.

각 시기별 학습 목표가 점검되고 재조정 된다면 학생들의 기형적인 과도한 학습 분량은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의하여 과도하게

발생한 학습 분량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 현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철학과 교육 목적

의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성인기에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외워라’는 식의 교육이 아닌, 이것이 왜 중요하며, 이렇게 되는 이유와 기전은 이것인데, 이렇게 외우면 더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KMA와 USMLE 최종 시험을 모두 합격한 한 졸업생에게 두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느낀 차이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그 졸업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KMA는 교과서의 구석구석 까지를 잘 아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출제가 되요. 교수님들은 그런 것까지 잘 아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례가 주어지는 것은 USMLE와 비슷하지만, 묻는 방식과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례를 가지고도 결국은 교과서 구석에 있는 결론적인 단편적 지식, 암기 지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초 의학과 임상의학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상의학 문제를 푸는데, 기초의학 지식이 실제로 요구되는 일은 적습니다.

.....USMLE는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병만이 출제됩니다. 다만,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떤 증상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제부터 어떤 것을 왜 의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어떤 것이 예상 되냐는 일종의 과

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결국 임상 문제들도 기초의학 지식을 요구하며, 기초의학 문제들도 임상을 모르면 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험을 대비하여 하는 공부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MA를 준비하며 알게 된 지식이 USMLE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그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기초의학 때 배운 그 내용들이 임상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USMLE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SMLE 준비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필자는 KMA와 USMLE 두 시험의 출제 방식에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각각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 간단히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시험 준비생의 입장에서 USMLE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는 말이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공부.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자발적이고 더 깊이 있게 학습 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학습은 지적 호기심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증가한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들이 학문에 대한 기쁨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그 때 학생들은 비로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습 내용 구성과 평가 방식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목표를 두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가 방식 역시, 단순한 지식 암기에만 두어지게 된다. 그것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첫째, 단순 암기식으로만 학습한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 이해력을 가지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결국 교육의 철학, 무엇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가는 그 처음은 매우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그 끝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철학과 목적의 변화 시도로 인한 지적 호기심의 자극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 개개인의 자기 개발 지원

필자가 있는 의과대학에서 학습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 중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비율은 2:1 정도이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거의 한가지로 일치한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도 공부할 것이 많고, 시험 칠 것도 많아 열심히는 하는데, 왠지 불안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공부하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연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은 학교 성적이 낮게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사회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 의대생으로서의 자기 개발이 지금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인 것이다. 대학의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할까? 결국 그것은 학생들이 미래에 담당할 임상의사, 의학자, 의료활동가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능력들을 일찍부터 적절히 개발시켜 주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고, 교수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로 된다.

결국 의과대학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필수 의학 지식의 습득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폭증하고 있는 의학지식을 기존의 교육 시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정리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자기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전원이 모두 다른 진로를 걷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가 된 이후 어떤 전공과를 선택하여, 그 가운데서도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할지, 아니면 어떤 연구나 활동을 할 것인지를 잘 탐색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학생 시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하여는 학교에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교육만을 받고 졸업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진로 탐색과 선택에 맞춘 소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많은 의대에서 주로 본과 4학년에 개설되고 있는 특성과 선택과정 (4-8주 정도를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 가서 연구하고 활동

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본과 1, 2, 3 학년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목만으로도 다 다룰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 개발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멘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동에서 여러 대학들의 영합, 공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대의 필수 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4. 학생 평가와 전공의 선발 방식

학생이란 어쩌면 매우 단순한 존재이다. 그들은 무엇을 배우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모든 학습 행위는 철저히 평가 내용과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학생들이 그리도 치열하게 내부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이 원하는 과를 하려면 학교 성적이 좋아야만 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부가 학생들의 진정한 개발에 있어 매우 일부분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 부분은 향후 임상 의사, 의학자, 의료활동가가 되는데 있어 매우 제한된 영역의 능력일 뿐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영역들의 자기 개발들이 있다. 그런데 전공의 선발에서 오직 지필고사 성적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 받

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 기간 중 꼭 필요로 되는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 개발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것이 결국 의대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놓고도 의학 지식만을 갖춘 의사들만을 배출하여 사회적 활동과 영향력에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모순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 선발을 지금과 같은 지필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이루어진 학생 연구 논문,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선택한 선택과목의 내용과 그 학점, 학생들의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의과대학 생활과 학습 태도, 활동은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90점 받을 시험을 92점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의 자기 개발을 포기해 왔던 그런 행동들은 없어질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자율학습실에서만 밤을 새우는 모습을 그만 보게 되면 좋겠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전체 기간 중 짧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필수적인 의학 지식에 대한 학습을 완수한 학생들 중 일부는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그 실험 결과에 전율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일부는 우리나라의 이 모순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젊은 열정과 두뇌를 가지고 밤새도록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일부는 말기 암 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의 심리에 대한 소설이나 희곡을 쓰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그들 수준에서 그래 보았자 얼마나 하겠는가? 차라리 그런 것은 나중에 전공의나 전문의가 되어

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는다. 인생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배움의 시기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경험과 배움이라도 가급적 학생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졸업 후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의 평가와 전공의 선발 평가에 정당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어 지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시험 성적이 아닌, 더 좋은 학생 논문을 쓰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더 좋은 의료 행정 인턴사원 활동 경험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더 좋은 소설을 써 보려고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의과대학들이 입학시킨 최고 수준의 학생들은 정말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 기간을 보내고, 최고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의사들이 되어갈 것이다.

5. 의료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의대 교수님들의 모습과 삶

마지막 요인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의과대학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 근래 학생들이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여서 의대에 가까스로 입학한 하였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의사들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그 절망적인 불합리성을 듣는다. 그에 대한 선배 의사들의 무기력을 보고 듣는다. 정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의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좋은 일이 있

겠냐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어간다. 의학교육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예민한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진정한 보람, 자부심,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여야 할지를 분명한 메시지로 교육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의대생들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배워나가고, 자신들의 미래를 본다. 따라서 의대 교수님들은 그런 어려운 의료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을 시켜 나갈 때 비로소 의학도들은 공부를 더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학교육을 담당할 교수님들이라 부르는 것이다.

IV. 마치는 말: 학습의 부진을 넘어서

본 글은 의학 교육에 있어 학습 부적응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한 사항들의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기 원한다.

1. 의학 교육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학습 부진학생’들 보다 눈에 안 띄는 ‘자기개발 부진학생’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체 학생 중 10% 내외의 유급자나 중도탈락자가 지금 의학교육의 문제로 논의된다. 소

수의 KMA 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학교의 가장 큰 두통거리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큰 문제는 유급되지 않고 잘 진급하며 KMA 에 합격하는 학생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진급하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의학교육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 학생들에 대한 존중 (respect)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되면 좋겠다.

의대생 때 학교와 교수로부터 존중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의사들, 레지던트 때 병원과 과장님께 존중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의사들만이 환자들을 존중할 줄 알 것이다. 보호자들을 존중할 줄 알 것이다. 다른 동료 의사들을 존중할 줄 알 것이다. 사회 속에서 존중 받는 존재로서 활동을 할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생 기간 중 자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공부를 잘 못하여 유급하는 학생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 의협내부 사정이 늘 어려운 이유, 의사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존경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도 의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학교육 안에서 찾아갈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일 것이다. 첫째, 잘 가르치는 것. 둘째,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학생이 잘 공부할 수 없게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 정말 학생들이 배우는 일에 전념하며, 자기 개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바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겁고도 행복한 책임이다.